

강진군, 버스여객터미널 특혜 매수 논란

'10억 웃돈' 66억8800만원에 매입 추진...소유주 배불리기 지적 감정가 턱없이 높고 매입과정 주민공청회 없는 일방적 행정 눈살

강진군이 폐업 위기에 놓인 버스여객터미널을 존치하기 위해 '매입 후 임대'라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10억원 넘는 웃돈을 얹어 사들이게 생겨 결국 '소유주 배불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버스여객터미널(강진읍 평동리)에 대한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지난 2021년 11월 꾸려진 뒤 정상화를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2021년 2월 말 건물 소유주와 강진군 간 터미널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 소유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운영이 불투명해진 것이 발단이다.

강진군은 정상화 추진 계획에 따라 터미널 소유주인 (주)해석으로부터 여객터미널 주차장 부지를 사들여 다시 유료 임대한 뒤 터미널 운영사업 면허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강진군이 감정평가기관에 2곳에 의뢰해 나온 터미널 가격은 66억8800만원에 달한다. 감

정 대상은 연면적 2372㎡ 2층 건물 1개 동 등 부동산 3530㎡이다. 여기에는 터미널 용도로 쓰이지 않는 2필지(567㎡) 가격 10억4600만원도 들어갔다.

이번 감정평가액은 지난 2017년 법원 경매 등을 통해 소유주가 사들인 가격(56억5400만원)보다 18.4%(10억34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같은 기간 터미널 부지 공시지가는 ㎡당 95만5000원에서 78만4800원으로, 17.8%(-17만200원)나 떨어졌다.

이 때문에 강진군이 의뢰한 감정평가에 감가상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진군은 터미널 사업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문닫을 위기에 처하자 지난 2018년 3월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한 뒤 매달 1500만원의 임차료(건물 900만원·주차장 600만원)를 소유주에게 주고 있다.

터미널에 들어선 내과·치과·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등도 소유주에게 월세를 치르고 있다.

강진군은 5년여 동안 10억원이 넘는 임차료를 내



강진버스여객터미널이 지난 2021년부터 폐업 위기에 놓이면서 강진군이 터미널 매입을 추진해왔지만 감정평가액이 당초 매입가보다 10억원 높아 헐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터미널 전경.

왔음에도 터미널 소유주가 정상 운영에 난색을 보이자 용지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 이 와중에 강진군은 600평 규모 2필지를 30억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감정평가액이 터무니없이 높을뿐더러 여객자동차터미널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2필지 매입도 추진되고 있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매입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는 등 강진군이 일방적인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진군은 매입 계약금 6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강진군의회는 터미널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위성식 강진군의회 예결위원장은 "사업자가 일반 매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도 강진군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보상가격 부분도 재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1@

청렴 공직문화 조성 함평군 '1부서 1청렴시책'

함평군이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함평군은 최근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기관장 주재 '제3회 청렴 회의체'를 개최해 30개 부서에서 추진한 1부서 1청렴 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통하고 존중하는 올바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예산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 관광정책실 '1청렴 좌우명갯기' 추무과 '청렴 10계명 갯기', 합평읍 '청렴소통 day', 읍면면 '클린 읍다 만들기' 등 30개 부서의 다양하고 참신한 시책을 부서장의 발표를 통해 공유했다.

또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와 대책 논의 및 함평군 35개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향후 추진대책 마련 등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청렴 실천이 단순한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 항상 배려하고 소통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기관·기업 동반성장 모색

간담회 갖고 협력 다짐

국내 유일의 전남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기관과 기업들이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화순군은 최근 화순생명사회포럼 주관으로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기관·기업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과 동반성장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구북규 화순군수, 범희승 생명사회포럼 사무총장, 임지락 포럼 정책보좌위원장, 조민 미생물실증지원센터장, 류강 생물약연구센터장을 비롯한 기관·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기업 관계자들은 "산·학·연·병·관 협업체인 만큼 소통의 장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화순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화순백신산업특구는 지난 2010년 11월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백신·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전임상, 임상, 인증, 제품화 단계까지 지원이 가능한 전주기 인프라 구축을 완성했다. 15개 지원기관과 33개 바이오기업 등



구북규(앞줄 가운데) 화순군수 등 참석자들이 화순생명사회포럼 주관으로 열린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기관·기업 간담회'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이 입주해 있다.

화순군은 지난 7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로 선정돼 인력양성의 메카로 발달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중인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와 함께 제3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화순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이번 자리가 화순 백신·바이오산업의 발전과 미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화순백신산업특구에서 많은 기업이 기반을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나주의 딸" 안세영 자랑스럽다"

운병태 시장, 세계배드민턴선수권 우승 축전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수요 대응 700억 규모 복합혁신센터 추진

운병태 나주시장이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안세영에게 '서록록의 천재'라는 극찬이 담긴 축전을 보내 고향 나주의 위상을 높인 데 대해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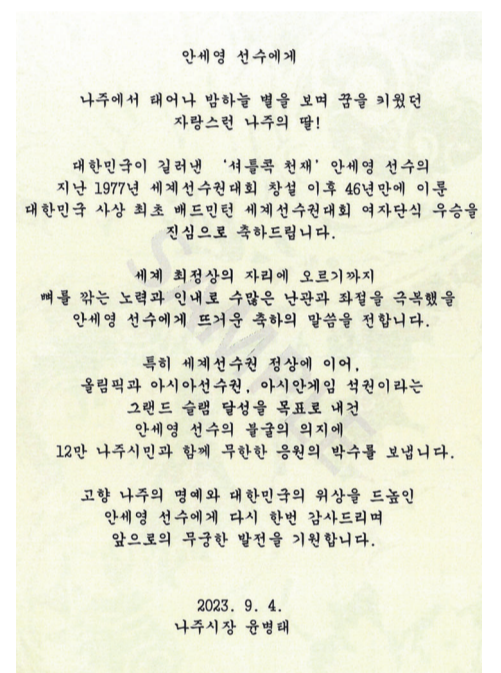
나주시에 따르면 운 시장은 "나주의 밤하늘 별을 보며 꿈을 키웠던 안세영 선수, 12만 나주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첫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세계 최정상급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뼈를 깎는 노력과 인내로 수많은 난관과 좌절을 극복했을 안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향 나주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안세영 선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나주 영산포 출신 안세영 선수는 아버지의 권유로 배드민턴에 입문해 천재적 기량을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내로라 하는 선수들을 잇달아 꺾고 정상에 올랐다.

안세영은 최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23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에서 우승했다. 1977년 시작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단식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대한민국 배드민턴 역사상 처음이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소재지 지자체에 걸맞은 스포츠 복지를 위해 2025년 준공 예정인 700



운병태 나주시장이 배드민턴 여제로 등극한 안세영 선수에게 보낸 축전.

억 규모의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제2스포츠 파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배드민턴 호인인 수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등 각종 생활체육 종목의 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지원이 나서고,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에도 발 빠른 대처가 나오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서 고향기부제 홍보

담양군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에 참가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작은 관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온기를 불

어넣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담양군은 홍보부스에서 지역 농특산물로 구성된 답례품 전시와 한과 시식회를 열어 고향사랑기부 방법과 혜택 등을 안내하고 담양의 특산품도 함께

홍보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양군의 명인이 만든 한과, 장류 등의 답례품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담양군은 3차례 답례품 선정 과정을 거쳤고 현재 고향사랑기부 시스템에는 38개 품목, 44개 업체, 100여 개 제품이 등록돼 있으며, 4차 답례품도 준비하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9월호

2023년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디자인을 만나다

meet design

삶을 바꾸는 디자인 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와 함께 가을·문화 축제 만끽

예매 초대석

제4회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조병수

"미래 도시는 땅과 물과 바람의 흐름을 이어야"

특별기획 - 전남관광광어지도 ④

남종화의 산실, 수묵학의 수도가 되다

특별기획 - '목도 어디까지 가봤니?' ④

2023목포문화박람회! 목포가 낳은 작가들 조명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 ⑧

호남의 누정 ③ 광주 풍영정

아름다운 풍광서 만나는 옛 선비의 詩文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⑨

아일랜드 동쪽상안의 비극·진영 같은 우리와 닮았네

멋과 맛 함께

완도 여행

'국립완도수목원' 거든! 완도수목원 | 신지 청정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 '슬로시티' 청산도, 보길도 '윤선도 원림'
'안도건강해' 유기농 다시마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입주 스마트 아일랜드 완도 더플문

청정 바다

난대 숲길

장보고 섬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조형물' - 에필로그

도시의 공공조형물, 일상 속에서 교감할 때 소중해진다

우리 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② 한희원미술관

한희원과 양림동 '예술의 시간' 채운 미술관